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목회상담의 실천적 가능성을 위한 연구*

최 광 현*

국문초록

한국교회는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한국사회와 교회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는 일찍이 한국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는 급속히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이 위기에 대해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상담과의 밀접한 상호연결 속에서의 노인목회상담을 제시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급속한 노령화에 맞서 현실에 맞는 노인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목회적 돌봄과 섬김의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의 영역에서 제공 할 수 있는 노인목회상담은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이해와 그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문화적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인이해를 전제로 노인들에게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노인목회상담은 한국교회와 고령화와 노인문제에 대한 적절한 돌봄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과 이론적 토대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교회와 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노인목회상담의 가능성과 그 의미와 이들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노인목회상담이라는 모델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심단어 : 노인, 노인상담, 교회, 위기, 목회

-
- 논문 투고일: 2012년 10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8일

- 논문 수정일: 2012년 10월 29일

*한세대학교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여는 글

오늘날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낳고 있다. 침체되는 유럽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급속한 고령화를 꼽는다. 그러나 유럽 보다 더욱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곳이 아시아권이며 그 중에서 유아의 출생 비율이 가장 급감한 한국이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예기치 못한 성도들의 고령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교회성장의 시기인 60-80년대에 성장의 주역이었던 성도들이 이제 노인층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한 노인 성도들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노인 성도들에 대한 배려와 목회적 돌봄에 대한 적절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목회적 사업들은 대부분 교회의 청. 중년 성도들을 위한 것들이다. 막상 교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층 성도에 대한 프로그램과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농촌교회들일 것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바로 농촌교회 성도들의 고령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농촌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는 기존 교회의 청. 장년 중심의 목회사역 아래에서 이들 노인층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의 프로그램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이제 한국교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맞서 현실에 맞는 노인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목회적 돌봄과 섬김의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에서 노인상담의 분야는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담모델이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노인목회상담이 존재한다. 노인목회상담은 노인을 돌보기 위한 목회 상담적 모델로 그 동안 발전해온 노인상담의 도움을 받아 교회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상담모델이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모델로서 노인목회상담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목회상담은 노인들이 직면

하는 역할상실, 소외감,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신앙의 문제 등 과 같은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교회봉사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노인목회상담의 가능성과 그 의미와 이들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노인목회상담 이라는 대안을 통해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II. 펴는 글

1. 노인의 개념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고령화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Erik H. Erikson은 8단계 발달이론에서 노년기를 성숙의 시기라고 표현한다. 이 시기에 주어진 과업은 자아통합 vs 절망, 혐오 이다.¹⁾ Erikson의 이러한 노년기에 대한 이해는 노년기의 주요발달과업으로 인정이 된다. Erikson의 발달과업 속에서 노인에 대한 용어는 노인이 처하여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 및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발달과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발달과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러 학자의 정의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Radebold은 노인을 (1)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에 있는 사람 (2)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3)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한다.²⁾ 노화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먹는 신

1) Erik H.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 1*(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9), 98.

2) Hartmut Radebold and Hildegard Radebold, *Aelterwerden will gelernt sein!* (Stuttgart: Klett-Cotta, 2010), 12.

체적 변화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Radebold은 노화가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노화는 먼저, 생리적 노화로 신체의 기관과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심리적 노화로,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 지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사회적 노화로, 생활주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³⁾ 따라서 노화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적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을 이해하게 된다.

2) 성서의 노인개념

성서에서는 노인 개념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노년(old age)에 관한 내용은 약 250여 곳이 된다.⁴⁾ 이은규는 구약에서 노인의 개념을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고 말한다. 먼저, 자겐(zagen)이라는 말로 이것은 히브리어 자칸(zagan; 창 18:12-13, 19:31)의 파생단어로서 그 의미는 ‘수염이 나았다’ 또는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야시스(yasis)라는 말로 ‘연로하다’, ‘나이든’, ‘노쇠한’(욥 15:10; 대하36:17)의 뜻이 있다. 셋째로, 셰이바(sheva)로 흰머리라는 뜻을 가지며, 나이가 든 사람을 칭하는 단어였다(창15:15; 왕상14:4; 창42:38; 시711:81).⁵⁾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보면 구약성서에서는 현재처럼 노인을 구분하였으며 약 60세가 넘는 사람을 노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약성서의 노인개념은 구약성서와 비슷하게 ‘늙은 사람’, ‘나이든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Clements은 성

3) Radebold & Radebold, *Aelterwerden will gelernt sein!*, 13-15.

4) William M. Clements, *Ministry with the Aging* (San Francisco, CA.: Harper and Row, 1981), 13.

5) 이은규, “성경에 나타난 노년의 생애유형”,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19』 (서울: 두란노서원, 1997), 257-258.

서에 나타난 노인들의 특징은 단지 나이가 든 사람만이 아닌 지혜의 상징이며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⁶⁾ 노인은 연장자로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존경의 주요대상이었음을 나타낸다. 성서에 나타난 노인의 이러한 이미지는 유교적 전통을 지닌 효(孝)와 예(禮)의 문화를 유지한 한국의 전통적인 노인이해와 연결 될 수 있다.

3)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고령화

고령화 사회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급속한 고령화는 충격적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한국사회는 2003년도에 이미 노인 인구가 전인구의 8.3%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5.1%로 추정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도 늘어나게 되어 2011년 한국인구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77.20세, 여자가 84.07세이며 평균 80.07세로 나타나고 있다.⁷⁾ 한국 사회에서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것으로 출생률의 급감을 꼽는다. 한국은 이미 과거의 고출생-고사망의 형태에서 저출산-저사망의 형태로 이미 진입하였다.⁸⁾ 이러한 분명한 사회적 인구동태의 변화는 앞으로 노동인구의 감소와 부양계층의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여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수치는 바로 한국교회의 고령화로 이어지며 유럽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젊은 계층의 성도 보다 노인층의 성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교회의 등장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을 시골지역 교회들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6) Clements, *Ministry with the Aging*, 20.

7) 통계청, 2011년 장래인구추계.

8) 한국가족학회 편, 『한국 가족문제-진단과 전망』 (서울: 도서출판 정우, 1995), 136.

2. 노인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써의 노인목회상담

1) 노인문제의 현실

(1) 경제적 어려움

선한승에 의하면 노인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⁹⁾ 경제적인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개인적으로는 직장에서의 은퇴로 인해 수입을 상실하고 재취업기회가 부족하기도 한 것에서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공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불충분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직장 남성들은 대부분 55세를 전후로 은퇴를 경험해 왔는데 오늘날 그 시기가 더욱 빨라지고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졌다. 2008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노인의 30.8%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의 29.0%와 비교하여 본다면 약간 증가하였지만 취업노인의 절대적 수는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하다.¹⁰⁾

이와 같이 공적인 소득보장이 정착되지 않은 실정에서 노인은 여전히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한국 노인들의 주소득원은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며 그 다음은 근로소득이 차지했고,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은 주소득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약 50% 이상이 자신들의 경제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¹¹⁾

(2)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차적·이차적 노화관정을 거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을

9) 정경배 외,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2008), 123-140.

10) 정경배 외,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5-128.

11) 정경배 외,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38-139.

수반하게 된다. 노인들은 일상생활동작(ADL)이나 도구적 일상생활동작(IADL)의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의 악화는 여러 면에서 의존성을 증가시키게 되어 노인생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¹²⁾ 특히 장기적인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더욱 부양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한 많은 갈등을 유발시킨다.

(3) 고독과 소외로 인한 어려움

최근 들어 한국사회 안에서 노인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는 301명으로 노인비율이 5.1%에서 2008년에는 8.7%로 2760명이 자살하였다. 이 숫자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노인자살률이라고 한다.¹³⁾ 사회정은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10명중 8명 이상이 자살을 고려해봤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 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35.3%인 181명은 구체적인 자살방법까지 생각해봤다고 하였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로는 전체의 26.8%인 137명이 '건강악화'를 꼽아 가장 많았고, '가족갈등'과 '심각한 고독'이 그 뒤를 이었다.¹⁴⁾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우울증 진료환자는 2008년 11만 340명으로 2000년(6만366명)에 비해 82.8%나 늘었다.¹⁵⁾

이러한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의 급증에는 한국사회 안에 이들 노인들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몰이해와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의 미흡이 그 원인일 것이다. 노인들은 은퇴 후 중심적인 역할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심리적인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한국사회 안에서 은퇴 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여가나 집단 활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은퇴가 곧 사회활동에서부터 고립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사회적 안전망과

12) 정경배 외,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78.

13) 정경배 외,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53.

14) 서화정,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전략”(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2005), 20-35.

15) 정경배 외,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60-170.

지지는 정서적인 외로움을 줄여주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 및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과 지지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201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노인가구의 20%가 노인독신가구였으며, 34%가 부부노인가구로 나타나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 비율은 50%가 넘었다.¹⁶⁾ 앞으로 더욱 심해질 핵가족화는 거주분리로 인한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노인과 자녀 사이에 대화의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져 노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외로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4)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한 어려움

역할상실이란 이전의 과업 지향적인 관계에서 행해지던 역할들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많은 노인들은 직장을 그만두면서 직업 및 사회적인 역할, 생계유지자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생애 주기 상으로도 자녀들의 독립을 양육자의 역할이 줄어들며, 배우자 혹은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 사별하는 경우가 많아져 배우자 등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상실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줄어들게 하여 자아상실, 우울, 외로움, 성취감과 자부심의 상실 등 기타 부수적인 문제들을 양산하는 계기가 된다.

노년기 속에서 노인들이 갖는 갈등의 주요한 이유로 위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의 갈등 요인들은 개별적인 요인이기 보다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노년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주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목회상담은 다차원적, 즉, 심리학적 발달, 사회적인 측면,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모두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10.

2) 노인목회상담의 필요성

(1) 전통적 부조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돌봄의 대안

한국인들은 급속하게 산업 기계 시대로부터 후기 산업 정보화 시대로의 사회적 변화를 경험해왔다. 한국의 놀라운 현대화는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문화적이며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왔다. 이렇게 진행된 현대화는 우리의 시대 속에 과거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개인화'이다.¹⁷⁾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상호간에 서로를 돕던 전통적인 부조시스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일을 분담하던 공동체적 사고는 퇴색되어지고 개인의 능력과 능률만이 강조되어지는 사회시스템이 사회전체의 규칙이 되고 있다. 산업화 시대 이전의 한국은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존재하였다. 조선 말기 선교사 James S. Gale은 이러한 한국의 노인의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말하길,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며, 자신이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였다.¹⁸⁾ 그러나 산업화와 현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변화는 노인들의 지위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노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돕던 문화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보험제도가 차지하였고 또는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독일 Bonn 대학교 교수인 Hauschildt는 산업화로 시작된 급속한 돌봄 시스템의 붕괴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부류와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부류를 양상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⁹⁾ 즉, 능력 있는 일부 노인들은 이러한 사회의 개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나가는 반면에 상담수의 노인들은 여기에 더욱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

17) Gerhar Schulze, *Die Erlebnisgesellschaft: Kultursociologie der Gegenwart* (Frankfurt am Main/New York: Campus, 1992), 142.

18) 권중돈, “노화의 노년기의 의미”(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대학원, 2003), 16.

19) Erhard Hauschildt, *Praktische Theologie*, 이영미 역, 『창조적인 목회를 위한 실천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272.

라.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여라(레 19:18).”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 주러 왔다(막 10:45).”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섬기는 분이 되었다. 따라서 섬김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현대 사회 안에서 ‘개인화’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섬김과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독교신앙에 기초하는 노인상담이 요구된다.

(2) 노인의 고통에 대한 목회적 ‘위로’의 필요성

성서는 모든 목회상담의 근원적 요소가 된다. 목회상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도움이라고 가정한다면, 목회상담은 성서의 인간이해와 세계관과 연결이 된다. 성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종류의 인간의 경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서가 목회상담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분명해진다. 성서적 기초위에서 목회상담의 주요주제는 인간의 고난이다.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하는가?”라고 욥기서는 묻는다. 욥기서에는 모든 것을 상실한 고난 받는 한 노인이 등장한다. 고난에 대한 설명과 대화는 인간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라는 관계의 도식을 와해시킨다. 인간의 삶은 선이 보상되어지고 악이 징벌 받게 되는 이러한 단순한 도식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 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납득시키기를 원했던 친구들의 신앙적인 합리성은 비난 받게 되며 오히려 욥의 불신앙적인 탄식을 허용된다. 물론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욥의 고난과 탄식을 더 이상 담지 않는다. 욥의 고난의 길은 이제 재앙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되어졌다.²⁰⁾ 신약성서에서 목회상담의 역사는 예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활동으로까지 소급된다. 예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와 바울서신에서 목회상담의 신학적인 기초를 발견하게 된다. 바울서신은 막 태동한 교회의 영적

20) Michael Dieterich, *Handbuch Psychologie und Seelsorge* (Wuppertal/Zürich: R. Brockhaus Verlag GmbH & Co., 1989), 240–250.

인 삶을 돌보는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하반부에서 바울은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사도들을 위로 하신다고 말한다. 헬라어인 ‘파라클레시스(paraklesis)’는 위로, 훈계, 부탁으로 해석된다.²¹⁾ 목회상담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의 토대 위에서 발생되며, 이러한 토대로부터 남을 위로하도록 돕는다. 즉, 위로는 모든 곤경에 대한 도움인 것이다. 바울은 ‘파라클레시스’를 통해 교회를 위한 목회상담의 책임을 인식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체 교회들에게 목회상담적인 사명을 호소한다. ‘파라클레시스’는 역시 은사와 직분에 속하며 (롬 12:8), 교회를 도우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도들을 이끈다.²²⁾ 목회상담이 사실 어떤 구체적 상황 속에서 각각의 개인에게 향해 있지만, 목회상담적인 돌봄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목회상담의 성경적 이해의 기초가 된다. 목회상담은 이제 옹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고령화시대를 나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일 것이다. Heije Faber는 오늘날 교회는 노인들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²³⁾ 한국교회는 이제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을 시작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과거 보다 많아진 노인 성도들은 그 만큼 다양한 삶의 문제와 갈등을 갖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들 노인들의 심리적, 발달적, 사회적 특성과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1) Eerhard Winkler, *Praktische Theologie elementa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7), 139.

22) Winkler, *Praktische Theologie elementar*, 140.

23) Heije Faber, *Striking Sails: A Pastoral-Psychological View of Growing Older Our Society*, trans. R. Mitchell (Nashville, TN: Abingdon, 1984), 146.

3. 노인목회상담의 실천: 교회의 영역 속에서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노인상담

1) 노인상담의 시작과 발전

노인상담의 기본원리는 “노인의 성공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지원, 사회의 공적개입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출발한다.²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노인상담은 개인 및 가족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노인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원망이며, 노인들이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대안적 서비스의 하나로 여겨진다.

노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는 의학의 선구자인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로부터 기원된다. 그는 피타고라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질병이란 혈액, 담, 황담즙, 흑담즙이라는 4체액설의 균형이 깨지는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역시 노화도 비슷한 원인으로 생겨난다고 이해하였다. 히포크라테스는 최초로 인간의 인생단계를 자연의 사계절에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노년을 겨울에 비교하였다. 그에 의하면 노화는 약 56세에 시작되며 건강을 위해 노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하며 또한 지속적인 활동을 충고하였다.²⁵⁾ 이러한 히포크라테스의 노인이해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인에 대한 이해가 지배적인 사고 패러다임이 되었다. 그에 의하면 생명의 조건은 내적인 열이며 여기서 노화는 열이 식는 것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노년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관점이 되었다. 그 후 노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발전하던 해부학을 통해 작은

24) Hildegard Bectler, *Gruppenarbeit mit älteren Menschen* (Freiburg: Lambertus, 1991), 120-121.

25) S. de Beauvoir, *La Vieillesse*, 홍상희 · 박혜영 공역, 『노년』 (서울: 책세상, 2002), 15-16.

변화가 일어났다. 해부학의 거장인 독일의 베잘리우스는 신체해부를 통해 인간이 화학적 구성이며 노화란 자가 중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⁶⁾ 17세기부터 노년에 대한 다양한 저작들이 나왔으며 노인병리학이라는 분야가 19세기에 발생하였다. 노인병리학의 선구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인 Neischer이다. 그는 당시 노화에 관한 연구중심지인 빈(Wien)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최초로 노인의 질병을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고 노인의 질병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였고 이것을 노인정신병리학이라고 불렀다. 1912년에 그는 뉴욕에 노인병리학회를 창설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노인상담의 시작은 역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에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일차대전 참전병과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 환자들의 심리적인 필요, 고독 그리고 특히 우울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집단치료가 사용되었다. 다양한 직업집단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러한 치료경험은 1960년과 1970년 사이에 강력한 지원과 함께 정신분석 훈련을 받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보다 체계화되었으며 또한 이론적으로 더욱 발전되었다. 이를 위해 Boston Society for Gerontological Psychiatry가 1963년에 세워졌다. 관련 심포지엄의 수행을 위해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가 1969년에 세워졌다. 외래 개인심리치료적인 방법의 집중적인 사용이 이것의 한 결과물이었다. 1970년부터 물론 미국에서 노인심리학적 연구결과와 중요 학습이론의 개념에 근거한 ‘개입노년학(Interventionsgerontology)’ 이 많은 다양한 사회적 치료방식, 훈련과 재활방법을 가능하게 했으며 계속해서 행동치료의 중요한 치료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 노인목회상담의 의미와 특수성

노인들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외감, 상실

26) Hartmut Radebold, *Psychodynamik und Psychotherapie Älterer* (Berlin: Springer, 1992), 120.

감, 무력감 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노인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는 외로움을, 사회적으로는 소외감과 직업과 역할의 상실을 경제적으로는 빈곤에 빠지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이나, 취업불안정성 등의 외부적 환경적 상황과 노인의 정서적 불안정, 소외, 죽음 등의 내적 심리상태에서 오는 불안감 등이 노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이미 되었지만 정작 노인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과 같은 돌봄의 서비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노인문제와 더불어 서비스 혜택 측면에서의 소외라는 이중고는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의 처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불안한 가운데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노인목회상담을 통해 이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노인들의 욕구와 필요를 들어 줌으로써 노인들의 문제를 예방 및 치료하는데 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이해나 필요한 문제해결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는 노인목회상담의 역할은 기존의 심리적 분야만을 담당하던 목회상담의 영역과 차별화가 필요하다.²⁷⁾ 노인들의 문제는 단지 심리, 정서만의 문제가 아닌 노년기 겪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노인목회상담은 부조시스템의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어 노인의 문제를 케어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목회상담은 적극적 치료로서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해결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목회상담은 교회 현장 속에서 노인문제 해결의 대안이며 노인문제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매개적인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²⁸⁾ 더 나아가 상담자체만으로도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상담을 통해 문제예방과 일상적인 노후생활을 한층 활력 있고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기능도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원들

27) 현외성 외, 『노인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유평출판사, 1998), 57-59.

28) Hartmut Radebold and Rolf D. Hirsch, *Altern und Psychotherapie* (München: Huber Bern, 1994), 32-33.

로 하여금 노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로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를 제공한다. 즉, 가족이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관계망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노인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지역사회내의 노인상담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노인목회상담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표현되지 못한 다양한 욕구들을 이끌어내고 그 자체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노인목회상담은 노인인구의 특성상 다른 어떤 연령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노인목회상담에서의 노인의 문제변화와 해결

(1) 노인의 문제변화와 치료목표

노인의 문제변화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추구하는 상담목표를 통해서 일어난다. 상담과정 속에서 상담의 실패를 흔히 내담자의 저항으로 돌리고 상담의 실패를 정당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상담의 실패는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상담목표에 원인이 있다.²⁹⁾ 그러나 상담목표가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라면 상담의 성공률은 높아지게 된다. 노인목회상담은 상담자가 노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기 보다 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상담자는 적절한 상담목표를 통해 노인 내담자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변화시킴으로서, 내담자가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 행동하였던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변화된 대응방식을 발견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상담자는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며 문제의 변화는 내담자 본인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문제와 증상이 변화되어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보다 불행을 택하는 이러한 내담자에 대한

29) Rolf D. Hirsch, *Psychotherapie im Alter* (Bern: Hans Huber, 2010), 46-47.

접근은 이들의 입장을 공감하며 이들에게 문제현실을 인식시키며 변화에 대한 용기를 촉진시킨다.

Paul Tillich는 목회자가 상담사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다.³⁰⁾ 상담사로서의 목회자가 가지는 하나의 목표는 텔리히적 표현에 따르면 ‘존재에의 용기’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노인들이 갖는 문제와 갈등은 ‘존재에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인간불안은 보편적 상황이며 특히, 노인들의 경우 불안은 그들의 노년기의 위기문제와 한계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 상담사는 문제의 해결사이기 보다 내담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며 문제의 해결은 노인 내담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게 하며 주어진 현실은 암담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형성을 통해 깊어 질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목회자는 이러한 자원을 일깨워주는 ‘촉진자’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며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얻게 된다.

(2) 노인 내담자를 위한 노인목회상담의 기본개입전략

노인상담 안에서 노인 내담자의 인식과 행동은 내담자의 삶의 구조와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노인 내담자의 문제는 더 이상 노인 개인들의 성격과 개인적인 특성을 통해서 기인된 문제가 아니다. 노인 내담자가 가진 문제와 갈등은 이러한 삶의 체계의 복잡성과 다양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노인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개인적 상담에서 상담자의 과제는 해결되지 못한 갈등과 문제 또한 이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어려움을 규명해내고 밝혀내는데 있었다.³¹⁾ 이와는 달리 노인상담에서는 상담의 목표가 내담자의 증상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있다.

30) Paul Tillich, *The Courage to B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52), 12.

31) Svenja Plitt, *Suizidalität im Alter* (Berlin: Verlag, 2006), 201.

노인들이 갖는 위기는 젊은 성인의 문제와 달리 보다 위기상답에 가깝기 때문이다.³²⁾

상담자는 개개인의 증상보다는 내담자가 처한 상황과 전반적인 삶의 구조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며 이것은 노인 내담자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 노인 내담자 문제의 해결은 원래의 행동방식과 이제까지 해온 해결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여기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게 하여 그가 가진 자원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해결의 도우미인 것이다. 노인 내담자는 노년기에 발생한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기의 문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 즉 의미체계의 발견이 필요하다. Eerhard Winkler는 하나의 ‘치료법’ 일 수 있는 목회상담이 노인들의 고통에 대해 추상적 물음이 아닌 실제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말한다. “왜 입니까(시22:2, 10:1, 42:10).” 바울은 그가 삶 속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 답을 한다. 먼저,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후12:7)라고 한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라가는데 겪게 되는 것 등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였다.³³⁾ Winkler는 성서 안에서 인간들은 자기의 고난을 단순한 고통으로 여긴 것이 아닌 의미화 하였으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을 연결시켰다고 말한다.³⁴⁾ Winkler의 견해를 따라가다 보면 성서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목회상담은 노인 내담자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의미를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은 노인목회상담의 주요한 접근 방식일 수 있다.

상담자는 먼저 노인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의하고,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결정을 하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

32) 장명수, “현대의 심리적 위기문제와 기독교해결중심치료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권 (2011): 164-165.

33) Winkler, *Praktische Theologie elementar*, 195.

34) Winkler, *Praktische Theologie elementar*, 196.

공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을 시도한다.

〈표 1〉 노인목회상담의 개입전략

노인 내담자를 위한 노인목회상담의 기본개입전략
① 노인 내담자가 자신의 노년기의 과업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② 노인 내담자의 문제체계 안에서의 역할을 이해, 수용하게 한다. ③ 최소한의 행동변화요소를 파악하고 실제로 내담자가 실천하도록 한다. ④ 노인 내담자가 문제체계의 변화를 위해 자원을 촉진시킨다. ⑤ 노인 내담자에게 가족 향상성의 상호과정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⑥ 노인 내담자가 신앙의 자원을 재발견하고 고통의 의미를 알도록 촉진한다.

(3) 노인문제들의 환경적 복잡성: 변화를 위한 시선

현대 사회 안에서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변화 요인들이 연구과제로 초점을 받아왔다. 이러한 환경적 관심을 바탕으로 노인을 체계 속의 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노인은 개별적으로 분리하기보다 그의 가족과 그가 속한 사회적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을 한다. 이러한 생태-체계적 관점과 관련해서 1970년대 말에 Bronfenbrenner는 환경이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Barker의 견해를 확장하여 인간발달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지각하고 다루는 방식에서의 변화로 정의를 한다. 이러한 Bronfenbrenner의 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³⁵⁾ 환경은 고정된 방식으로 노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노인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선택, 조정, 창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생태심리학적 모델에서 볼 때 노년기의 발달은 결국 다양한

35) Urie Bronfenbrenner, *Die Oekologie der menschlichen Entwicklung* (Stuttgart: Kett-Cotta, 1981), 65.

시스템과 그 안에서 꾸준한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 그리고 노인이라는 영역 속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론적 관점은 노인의 문제를 단순히 노인 내면의 문제로 보지 않고 노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을 파악한다.³⁶⁾ Selvini Palazzoli에 의하면 노인을 포함한 가족은 다양한 사회적 체계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 사회 체계 안에서의 한 요소로 존재 한다고 말한다.³⁷⁾ 사회체계로서의 가족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끊임없이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하부 시스템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노인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개인적 이슈들에서 벗어나 노인을 둘러싼 관계적 이슈들로 확장한다. 따라서 관심의 대상은 관찰자가 아닌 관찰대상(the observed)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관찰대상으로의 관심의 전환은 관찰자가 그 자신의 실재를 지각하고, 행동하며, 창조하므로 관찰자 자신의 주관성을 인정한다. 최근에 체계이론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닌 주관적 실체에 대한 인식론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주의이론을 받아들임으로서 이러한 관찰자의 주관성은 더욱 강화되었다.³⁸⁾ 이러한 맥락에서 관찰자와 관찰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노인의 문제를 '왜' 일어났는지를 묻기보다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통해 노인의 문제와 갈등은 노인의 내적인 문제로만 여기지 않는다. 체계관점을 통한 노인문제연구에서 의미 있는 공헌을 한 Friedman은 교회를 가족체계와 같은 하나의 체계로 보았으며 노인 내담자들이 가족체계와 교회체계가 가지고 있는 관계 체계들의 감정적인 상호의존성에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주장

36) 최광현,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한 위기가족을 위한 목회적 돌봄",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권 (2011): 181.

37) M. Selvini Palazzoli, *Self-Starvation* (New York: Aronson, 1974), 23.

38) Sheila McNamee and Kenneth J. Gergen, *Therapy as Social Construction*, 김유숙 역, 『심리치료와 사회구성주의』 (서울: 학지사, 2004), 26.

하였다.³⁹⁾ Friedman에 의해 시작된 가족체계로서의 교회라는 체계적 사고의 목회상담의 적용 가능성은 역시 노인과 그의 가족들의 다양한 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인간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체계론적 사고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과 그의 가족 안에 있는 인간의 문제와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4) 노인 내담자를 위한 가족의 협조와 참여

노인은 젊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보다 가족이라는 환경체계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노인은 젊은 성인 보다는 환경적 장애물들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예방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자립능력의 부족과 환경에 대한 의존도는 노인목회상담의 현장 속에서 내담자에게 중요한 가족의 참여와 협조를 요구한다. 노인은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활동의 제한성 속에서 노인은 점차로 사회활동과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감퇴시키며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활동범위가 좁아진 노인은 그들의 관심을 주변인이 아닌 가족에게 향한다. 노년기에 가까워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안정을 얻기를 바라며, 여기서 가족은 노인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대상이 된다. 노인들의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의존도는 노인목회상담에서 가족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한다. 상담에 대해 가족의 참여는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상담사의 중요한 과제는 노인 내담자의 가족들의 참여와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리고 가족들의 참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Friedman은 이러한 가족의 협조를 토대로 노인 내담자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한다. 첫째로, 노인 내담자에게서 치매 또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시작되는 것은 종종 가족 항상성 안에서의 다른 변화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노인 내담자의 노화로 인한 신체적 어

39) Edwin H. Friedman, *Generation to Generation: Family Process in Church and Synagogue* (New York: Guilford Press, 1985), 20.

려움은 항상 감정적인 요소를 동반한다. 세 번째로, 노인 내담자의 문제는 다세대간의 힘의 역할과 연결이 된다. 넷째로, 노인 내담자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단순히 돌보는 행위만이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를 통해 노인 내담자들의 역기능적인 가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다섯째로, 노인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는 가족구성원들의 체계변화는 단순히 노인 내담자의 문제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가족체계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⁴⁰⁾ 이와 같은 Friedman의 견해와 더불어 Morgenthaler는 노인 내담자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노화와 같은 신체적, 또는 외형적 문제가 아닌 그들이 가족 안에서 또는 가족 밖에서의 그들의 위치의 변화로 인한 요인들에서 온다고 한다.⁴¹⁾ 즉 노인들은 역할의 상실 속에서 많은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목회상담은 체계이론을 통해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며 노인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가족중심의 관점에서 노인문제가 관찰되며 이를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

III. 닫는 글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노인목회상담은 현재 한국의 목회신학의 영역 속에서 아직 태동기에 놓여있다. 한국에서 일반노인상담 역시도 아직 태동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직면한 노인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노인목회상담을 살펴 보았다. 노인목회상담의 필요성은 한국의 노인들의 급증하는 우울증환자와 그리고 높은 노인자살률이 노인상담의 필요성을 반증해준다. 비록 한국교회의 노인 성도들이 종교적 신앙 때문에 자살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40) Friedman, *Generation to Generation*, 56-59.

41) Christoph Morgenthaler, *Systemische Seelsorge* (Stuttgart/Berlin/Koeln: Kohlhammer, 1999), 34.

도 실제로 자살과 마찬가지로 삶을 포기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거나 역시 우울증과 같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노인목회상담은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이해와 그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문화적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인이해를 전제로 노인들에게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목회상담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인 스스로 문제해결에 참여하여 신앙의 관점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체계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그리하여 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상황을 창의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한 노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교회를 통한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노인들에 대한 돌봄은 무엇보다 노인목회상담이라는 기독교적 사회안전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라는 조직의 원조에 의해 노인상담은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노인들에게 다가 갈 수 있다. 교회는 단순히 노인을 도움이 필요한 타자로서 인식하기보다 삶의 주체로서 볼 수 있기에 노인에 대한 이해는 어떤 조직 보다 효과적이다. 노인목회상담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사들을 문제에 처한 노인들과 연결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교회 조직을 통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자원봉사자들로 활용하여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교회의 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Klaus Winkler가 말하듯이 노인목회상담은 노인들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잘 보내고 주어진 삶의 과제를 잘 성취하도록 하여 인간답게 늙어가고 '하나님을 위한' 노년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⁴²⁾ 노인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활동분야는 광범위하며 이것은 한국교회에게는 일종의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한국교회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제반문제들은 한국교회에게는 새로운 위기 일 수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다루는가에 따라 새로운 기회 일 수 있다.

42) Klaus Winkler, *Seelsorg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340.

【 참고문헌 】

- 권중돈. “노화의 노년기의 의미”.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대학원, 2003.
- 서화정.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전략”.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5.
- 장명수. “현대의 심리적 위기문제와 기독교해결중심치료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 학회. 『복음과 상담』 제17권(2011): 153-178.
- 정경배 외. 『고령화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2008.
- 최광현.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한 위기가족을 위한 목회적 돌봄”. 한국복음주의기독교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권(2011): 179-201.
- 한국가족학회 편. 『한국 가족문제-진단과 전망』. 서울: 도서출판 정우, 1995.
- 현외성 외. 『노인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유흥출판사, 199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10.
- Beauvoir, S. de. *La Vieillesse*. 홍상희 · 박혜영 공역. 『노년』. 서울: 책세상, 2002.
- Bectler, Hildegard. *Gruppenarbeit mit älteren Menschen*. Freiburg: Lambertus, 1991.ä
- Bronfenbrenner, Urie. *Die Oekologie der menschlichen Entwicklung*. Stuttgart: Kett-Cotta, 1981.
- Dieterich, Michael. *Handbuch Psychologie und Seelsorge*. Wuppertal/Zürich: R. Brockhaus Verlag GmbH & Co., 1989.
- Erikson, Erik 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 1*.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9,
- Faber, Heije. *Striking Sails: A Pastoral-Psychological View of Growing Older Our Society*. trans. R. Mitchell. Nashville, TN.: Abingdon, 1984.
- Friedman, Edwin H. *Generation to Generation: Family Process in Church and Synagogue*. New York: Guilford Press, 1985.
- Radebold, Hartmut. and Hildegard Radebold. *Aelterwerden will gelernt sein!* Stuttgart: Klett-Cotta, 2010.

- Hauschildt, Eerhard. *Praktische Theologie*. 이영미 역. 『창조적인 목회를 위한 실천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Hirsch, Rolf D. *Psychotherapie im Alter*. Bern: Hans Huber, 2010.
- McNamee, Sheila. and Kenneth J. Gergen. *Therapy as Social Construction*. 김유숙 역. 『심리치료와 사회구성주의』. 서울: 학지사, 2004.
- Morgenthaler, Christoph. *Systemische Seelsorge*. Stuttgart/ Berlin/ Koeln: Kohlhammer, 1999.
- Plitt, Svenja. *Suizidalität im Alter*. Berlin: Verlag, 2006.
- Radebold Hartmut. and Rolf D. Hirsch. *Altern und Psychotherapie*. München: Huber Bern, 1994.
- Radebold, Hartmut. *Psychodynamik und Psychotherapie Älterer*. Berlin: Springer, 1992.
- Schulze, Gerhar. *Die Erlebnisgesellschaft: Kulturosoziologie der Gegenwart*. Frankfurt am Main/New York: Campus, 1992.
- Selvini, M. Palazzoli. *Self-Starvation*. New York: Aronson, 1974.
- Tillich, Paul. *The Courage to B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52.
- Winkler, Eerhard. *Praktische Theologie elementa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7.
- Winkler, Klaus. *Seelsorg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 Abstract 】

A Study on the Practice of Pastoral Counseling for the Elderly in the Aging Society

Kwang Hyun Choi

Hansei University

In the situation of aged society, Christian churches need to execute pastoral counseling for the aged and their families. However, going beyond quantitative and material approaches to elderly problems, the church should be able to present new elderly counseling programs and pastoral visions. It is because ag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not only to the country and society but also to Korean Churches and it should be solved with active alternatives.

The growing population of adults over the age of 65 continues to outstrip our provision of services. Pastoral theology for the aged approach in the field of counseling and gain strength in various field. But there in no official report this applied in elderly counseling. This thesis endeavored to apply Pastoral theology for the aged approach to the elderly.

Pastoral elderly program operators should carry out ministry in the ways of forming friendliness with elders, understanding their mind, and embracing them. Moreover, elders should be treated with knowledge and insight, and respected as whole persons rather than as beneficiaries of education or welfare. In this way, the churches should imbue elders with life and power so that they can lead their own life in a new spirit as creative and organic contributors.

Key words: older adult, elderly counseling, church, crisis, pastoral